

초등사회과 역사교육에서 사료학습의 전략적 탐색

이성형 * 송인주

대구서재초등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I. 머리말

20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Doing History, New History¹⁾라는 교육적 트렌드는 역사 학습에 있어 일대 패러다임의 변화²⁾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그 후속 조치들이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등 역사 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는 하나 현장 교사 혹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역사학습은 과거의 사실들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단지 외워야만 하는 단순 암기 과목일 뿐이라는 인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³⁾ 교사나 학생들의 인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의 형태도 최근의 역사 교육 트렌드를 반영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질적인 변화가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혹자들이 말하는 역사교육의 목적, 즉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적 사고력⁴⁾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역사적 사고력 혹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가들이 진행하는 해석적이며 논쟁적이라는 역사학의 본질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⁵⁾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주제의 선정을 비롯하여 그에 관련된 자료들에 근거한 해석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역사교실수업이 요청된다.⁶⁾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료학습은 몇몇 교육적 관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사료⁷⁾를 활용한 역사 학습은 역사학이 지향하는 목표를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1) 김중락(1999), 사료 활용의 측면에서 본 한국과 영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비교, 『울산사학』 8.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 된다.

배한국·송인주·주용영 역, Linda S. Levstik & Keith C. Barton 지 : 초·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조사 연구하는 역사하기, 2007, pp.7~11).

3) 송인주(2010), 예비 초등 교사들이 본 한국사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역사교육』 113.

4) 양호환 외 9인(1997),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pp.351~360.

5) 해석적이며 논쟁적이라는 말은 해석적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다(김중락, 앞의 글, p.3).

6) 나아가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 곧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지식의 특성에 대해 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결될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양호환,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역사교육』 113, 2010)이 참고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혹은 “역사라는 지식”대상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촉발하고 경험시키는데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7)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료는 1차 및 2차 사료를 의미한다. 다만 본고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차 혹은 2차

학습 방법이라는 점이다.⁸⁾ 게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요구되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동향, 즉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주제나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⁹⁾

둘째,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인간과 시간 영역의 경우 종전에 비해 더욱 사료의 활용 요구가 증대된다.¹⁰⁾ 즉 역사를 탐구하고 역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Doing history: writing history-story telling)를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흥미나 재미 혹은 다원화된 가치라는 사회적 트렌드와 맞물려 퓨전(Fusion)으로서의 역사에 젖어 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사료들을 이용한 사료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¹¹⁾ 퓨전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적 지식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 봄으로써 기본적인 사료 학습 기능과 감각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의 의도 하에 학생들의 사료 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그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탐구 능력이나 역사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어떠한지를 추적 관찰함으로써 초등 역사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일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더불어 역사 영역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탐색해 보았다.

II. 사료 이해와 그에 따른 역사적 일반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료로 구분하여 쓰기로 한다.

- 8) 또한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 과정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교육부, 1998a, 102>, <교육부, 1998b, 236>).
- 9) 역사 교육의 목적이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암기나 이해 및 교훈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고(양호환 외 9인, 앞의 책, p.346) 할 때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역사를 해석적이며 논쟁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인드를 학생들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료학습인 셈이다.
- 10) 2007년 개정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인간과 시간 영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역사와 친숙해 지기(역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둘째, 우리 역사의 큰 흐름 파악하기, 셋째, 뿌리 의식 갖기(민족의 형성 과정 알기-정체성의 확인,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갖기, 자존의식의 함양, 과거 조상들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이 가지는 상관성 알기), 넷째, 역사를 탐구하고 역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doing history : writing history-storytelling)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 조직의 원리를 따랐다.
첫째, 지평확대법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국가사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징을 다룬다.
둘째, 역사학자의 활동을 보강하여 역사쓰기(writing history)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그 전체 체계에서 파악하게 하되, 이를 구체적으로는 활동과 문화, 그리고 인물 중심의 내용을 구성하고 서술한다.
넷째, 우리 역사를 현재와의 관련에서 이해하기 위한 체험과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다섯째, 내용 요소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되, 그 양은 전체적으로 축소한다.
- 11) 탐구하는 역사(Doing History)나 신 역사(New History)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0년대 들어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퓨전(Fusion)으로서의 역사가 유행한 점도 이를 반영한다. 예컨대 최근의 황산벌, 왕의 남자, 미인도 등의 영화 그리고 주몽, 이순신, 대조영, 바람의 화원, 천추대후 등의 드라마를 들 수 있다.

역사적 방법에 내재하는 커다란 한계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와 기타 출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결론들을 식별해 낼 수 있게끔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¹²⁾

뱅크스는 역사적 편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사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하는데 있어 뱅크스의 이 같은 주장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 기능에 해당하므로 본 장에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사료의 개념과 특징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안의 구안 및 적용

가. 교수학습활동안의 구안 및 적용

1) 상황 설정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개요

학생들에게 1·2차 사료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업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수학습활동 과정



〈표 1〉 1·2차 사료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안 개요

여건 조성 및 상황 만들기	⇔	▸ 2009년 어느 날 5교시 수업 직후의 반 분위기
사건 경험 및 기록하기	⇔	▸ 반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며 내용 기록하기
사건 발표 및 재구성하기	⇔	▸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 발표하기 ▸ 사건 재구성하기(교실 밖으로 나간 4명의 학생)
사건 비교하기	⇔	▸ 직간접 기록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1·2차 사료의 개념 알아보기	⇔	▸ 사료의 개념 알아보기 ▸ 1·2차 사료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12) 최병모 역(1987),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 p.222.

2) 교수·학습 활동안

학습주제		1·2차 사료의 뜻을 알고 구분하기	학습자료	숫자 및 용어카드, 1·2차 사료 카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가 무엇인지 또 1·2차 사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지식·이해) ▪1·2차 사료를 찾아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다.(기능)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이해 태도를 가지려 노력한다.(태도)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형태)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파악	상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건 조성 및 상황 만들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떠들썩한 교실 분위기를 가만히 지켜보다 4명의 학생을 교실 밖 운동장으로 내보낸 후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눈을 뜬 몇몇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후 노래 한 곡을 들려준다. </div>		15	
문제 탐색	사건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개별로 학습장에 적게 한다.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5교시 후 교실에서 일어난 일과 상황에 대해 학습장에 기록한다. ▪4명의 학생이 운동장을 다 걷고 들어오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본다. -선생님께 많이 혼난 것 같습니다. -벌이나 꾸지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 발표하기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과 듣고 기록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기 		25	①학습장
적용 및 일반화	개념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차 사료의 개념 알아보기 ▪철판에 숫자 카드 21 과 4 를 붙인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한 후 발표한다. -21은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본 사람을 뜻하는 숫자이고 4는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 1차사료 와 21, 2차사료 와 4를 연결지어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1차 사료는 일이나 상황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2차 사료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거나 다른 것을 보고 쓴 글을 말합니다. ▪1·2차 사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신문기사, 승정원일기, 시일야방성대곡 등 </div>		10	②숫자카드 ③용어 카드 (1·2차 사료) ④사료카드 ※교사가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및 1·2차 사료의 개념 정리하기 ▪알게 된 내용 발표하기 -자료에는 1차와 2차 사료가 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차 자료가 2차 자료보다 더 필요하다. -1차 자료라도 쓰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10	

나. 1·2차 사료의 개념과 특징 이해에 대한 학습 활동 결과

사료란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현재의 남아있는 기록이나 유물(유적)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자는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어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들이다.

〈표 2-1〉 학생들이 기술한 당시 상황 기록

- 선생님께서 몇몇 아이들에게 나가서 운동장 3바퀴를 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태윤이에게 수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애 하는지 물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셨다.
- 그 네 사람이 나가고 난 후 우리는 CM Song, 락음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락음악을 들려주시기 전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 했고 음악을 다 들은 후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귀에 익숙한 노래지만 가사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표 2-2〉 질문 목록 중 일부

- 사료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
 - 지금 여러분이 쓴 글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사료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자.
 - 21명의 아이들이 직접 겪은 다음에 쓴 글과 운동장에 나갔다 들어와서 일어난 일을 듣고 다시 쓴 글 중에 어느 것이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하는가?
 - 과거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글로 남겨진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해 보자.
- 사료의 성격을 묻는 질문들
 - 같은 상황을 보고 쓴 여러분들의 글은 다 같은가? 다른가?
 - 왜 다를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사료 활용을 위한 질문들
 - 같은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쓴 글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일어난 일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하고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표 2-3〉 학생들이 서술한 사료의 개념

-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 사료는 또 다른 사료를 낳는다. ■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
- 기록해 놓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있었던 일을 쓴 것
-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이나 알게끔 하는 자료들

〈표 2-4〉 1차 사료와 2차 사료

- 1차 사료는 직접보고 쓴 기록이고 2차 사료는 직접 겪은 사람에게 듣고 쓰거나 1차 사료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덧붙여 쓴 것
- 당대에 일어난 일을 직접 기록한 것이 1차 사료이고 2차 사료는 1차 사료+덧붙인 글

〈표 2-5〉 1·2차 사료의 속성과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 1차 사료는 직접보고 쓴 기록이라 자세하고 정확하다. 그에 반해 2차 사료는 1차 사료보다 덜 정확하고 쓴 사람의 생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 지나간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를 사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1차 사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차 사료인데 1차 사료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해서 쓴 기록이고 2차 사료는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쓴 글이다. 1차 사료가 2차 사료보다 직접 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본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12차 사료의 개념 및 사료가 있어야 과거를 알 수 있고 개인의 생각이나 편견 및 상황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사건도 얼마든지 상이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역사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역사 수업을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역사적 일반화를 위한 교수학습안의 구안 및 적용

종래 बैं크스는 역사학의 구조와 개념 및 교수전략을 설명하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¹³⁾하고 있다.

교사는 단원 구성의 초기 단계에서 역사적 요소가 단원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역사적 일반화들을 규정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다. …… 다음의 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역사적 일반화를 골라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계획을 짜는지 예시한다.

뱅크스가 제시한 역사적 일반화의 내용은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बैं크스가 제시한 역사적 일반화

순서	일반화 내용
일반화 1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증거 확보 가능성, 역사 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과 목적, 그리고 그가 살고 있으며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사회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화 2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과거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사용한다.
일반화 3	인간사회는 변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반화 1,2,3의 번호-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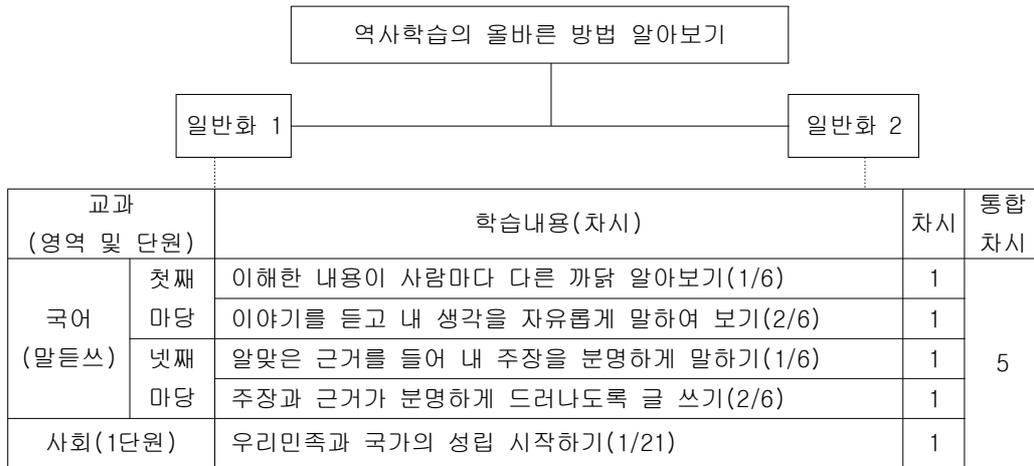
가. 역사적 일반화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안의 구안

역사적 일반화 이해를 위한 학습활동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습활동을 하였다.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역사적 일반화 1:2를 도출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¹⁴⁾

13) 최병모 역(1987)(James A. Banks 저)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 p.230.

14) 6학년 1학기 국어(말듣쓰)의 4차시와 사회 1단원 단원 개관의 1차시를 활용하여 일반화 1, 2를 도출하는 학습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학습인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여 각자의 생각



나. 교수·학습안 적용을 통한 학습 결과 분석

1)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출한 역사적 일반화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출해 낸 역사적 일반화는 बैं크스의 그것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의 <표 5> 와 같다.

<표 5> बैं크스의 일반화와 수업을 통해 학생이 도출한 역사적 일반화

뱅크스의 일반화	구분	학생들의 일반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증거 확보 가능성, 역사 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과 목적, 그리고 그가 살고 있으며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사회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 일반화 1	사람마다 사고방식, 생각,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일들을 보고 적은 기록이 모두 다르다. (A학생)
		사고방식, 자기생각, 환경, 경험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남겨진 기록도 차이가 난다. (B학생)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과거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사용한다.	역사적 일반화 2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역사적 사실을 적은 다른 기록들을 보여 비교를 해 보는 것이다. (A학생)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증거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학생)

2) 역사적 일반화와 역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 학습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게 해 보았다. 몇몇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표 6〉 역사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분	학생 진술 내용
올바른 역사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	<p>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과거의 일들을 아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며 과거의 일들, 사건들을 알기 위해 예전 기록이나 자료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찾은 그 자료들은 개인의 사고방식, 환경, 경험 등에 따라서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기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차이점을 보인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을 사용한다.</p> <p>이렇듯 올바르게 역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직접 자료를 찾고 그 사료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p> <p>② 우리가 역사학습을 바로 하려면 자료를 찾아 봐야 한다.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p> <p>자료의 종류는 책, 벽화, 유물, 구비 전승 등의 자료가 있다. 이들을 함의해 놓은 게 교과서이다. 1차 자료는 당대에 일어난 일을 직접 기록한 것이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덧붙인 글이고 3차 자료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이다. 그런데 자료의 문제점은 개인의 생각, 사고방식, 환경, 경험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일이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쓸 때에는 객관적으로 쓰거나 자료를 볼 때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자료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p>

3) 역사적 상상에 대한 인식

Louis Gottschalk는 “실제 역사와 역사 지식 간에 명백한 간격이 존재하며 그 간격은 상상적인 과정, 즉 정말 있었거나 적어도 단서로부터 부적합한 그 자취(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재구성에 의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역사가들의 역사 해석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상상의 과정이 개입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역사적 상상이 곧 조사자의 편견이며 개인적 오차이며 또한 역사 기술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편견인 것을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일반화 학습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이 역사적 상상의 개념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역사적 상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그에 대한 과정은 역사적 일반화 2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한 역사적 상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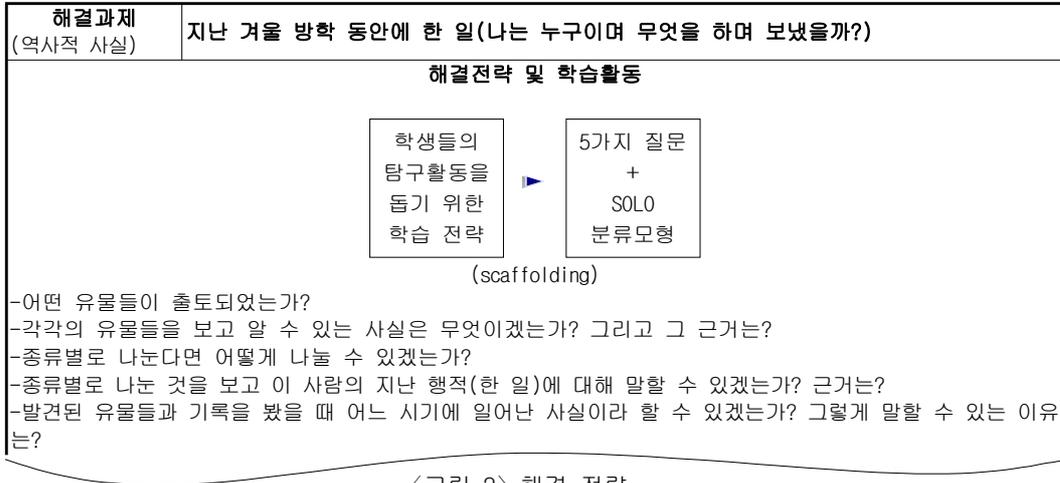
〈표 7〉 학생들이 이해한 역사적 상상의 개념

- 미술에서의 상상은 자유롭게 자유화처럼 「하늘에 난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것이고 오늘 배운 상상은 마음대로 하는 상상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예측하거나 앞뒤 내용에 맞게 상상하는 것.
- 지나간 일을 알기 위해 사진이나 근거 자료를 보고 예상하는 것.
- 근거와 이유를 통해 진실에 가깝게 생각해 나가는 것.
- 상상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상화를 그릴 때의 상상과 다른 점은 미술이나 그림 그릴 때의 상상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지나간 일이나 과거를 알아볼 때의 상상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서 자기 생각을 더하여서 쓰는 것.

3. 『쓰레기통에 담겨진 진실』 프로그램을 통한 역사 탐구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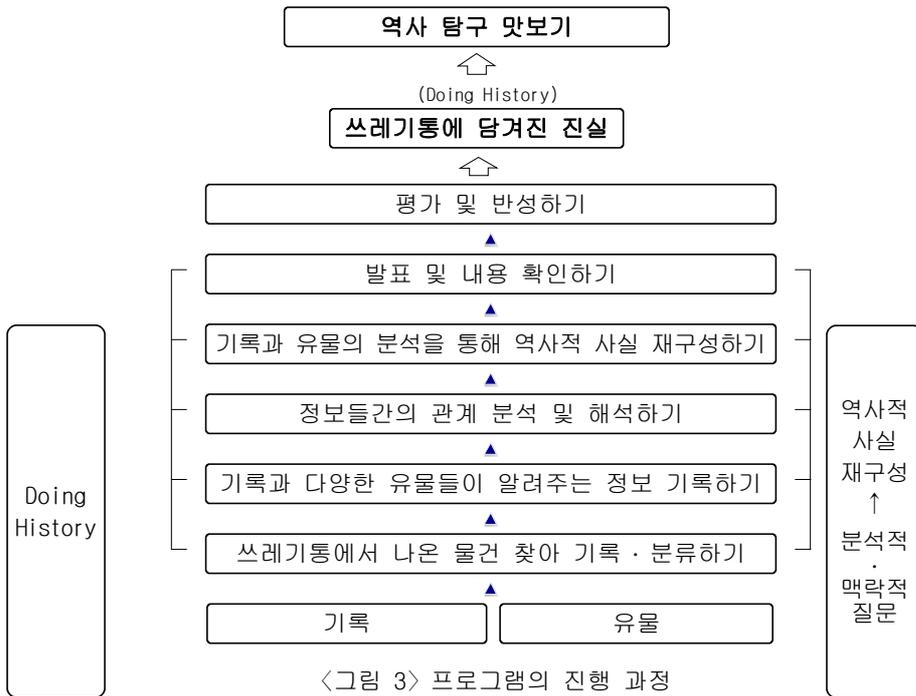
가. 프로그램의 개발

(1) 해결과제(밝혀내야 할 역사적 사실)와 해결 전략



<그림 2> 해결 전략

(2) 『쓰레기통에 담겨진 진실』 프로그램의 개요



<그림 3>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나. 교수·학습 과정안(원고 참고)

다. 교수·학습 활동 결과

(1) 학생들의 탐구 활동 모습



<그림 4> 학생들의 탐구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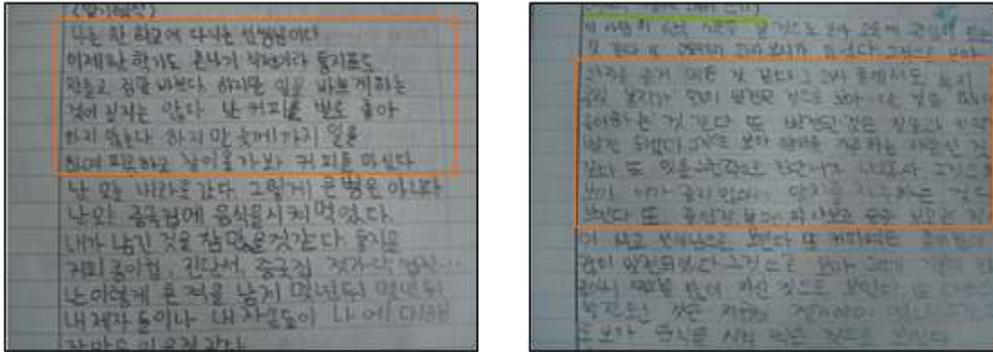
(2) 분석 및 해석 과정

<표 8> 분석 및 해석 과정

<p>분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자료: 학교식단표, 졸업장, 학사보고서 2. 경제자료: 카드명세서 3. 사회수업자료: 삼국시대 지도, 발해지도 등 4. 병원관련: 약처방전, 치과 명함 등 	<p>질문리스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사람의 직업은? 2. 이 사람의 취미는? 3. 바쁘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무엇 때문에 바빴을까? 이들 유물과 관련이 있을까? 4. 치과 명함은 왜 있을까? 카드명세서나 처방전하고 관련이 있을까? 등
<p>알 수 있는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동초 식단표와 졸업장을 보고 이 사람은 선생님이며 효동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처방전과 카드사용처가 병원인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아팠음을 알 수 있다. 3. 학사보고를 통해 이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알 수 있다. 4. 이 사람의 취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등 	<p>분석한 글</p> <p>이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인 것 같다. 왜냐하면 졸업장, 교육신문, 여러 가지 지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학교 일이나 수업준비와 관련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초콜릿 봉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단 것을 좋아하며 약과 진단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몸이 아팠던 것으로 보인다. (생략)</p>

(3) 학습결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 경험한 학습이었지만 학생들이 재구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기대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들이 사료에 접근하여 사료자체의 속성과 그에 내재된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는 기본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료를 활용한 탐구하는 역사 학습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 학생들의 사료 활용 능력이 검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실제적 수업 적용을 통해 확인해야할 부분이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나타낸 학습 결과물이다.



역사적 상상을 통해 일기 형식으로 표현한 글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

<그림 5> 역사 쓰기의 예

IV. 결론

사료를 활용한 역사수업이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현장에 적용 분석한 시도들 또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대개 역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역사 수업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측면에서 사료를 이용한 수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학교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료화와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사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전제로서 판단되는 이른바 학생들이 사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만한 전략적 접근이 미시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과정이 미흡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려는 각도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생들도 역사지식 혹은 역사적 지식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하는 역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한다. 본 연구 결과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스캐폴딩만 제공한다면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사료의 개념과 성격 및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⁵⁾

둘째, 역사학습 경험을 통하여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통에 담겨진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

15)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 「2009년 3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5교시」와 같은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고 지난 사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였다. 즉 역사가들이 행하는 분석적 질문과 작업들을 학생들도 직접 해 보도록 함으로써 사료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보다 더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방증된다.

셋째, 교수학습방법은 본질적으로 교사의 교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는 해석적이고 논쟁적인 역사의 속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사료와 사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본 논문에서 도출한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고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한 사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과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화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실 환경과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차라는 수업의 핵심적인 변수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연구과정에서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미비한 점은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었으면 한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 증거, 사진 등이 있어야 하고 사진, 자료, 증거 등
 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료, 사진, 증거 등을 통해 알아왔
 데 근거가 자료 보다는 여러 자료와 제각각 과거를 알기 위해 확실하게 알아야 더 많
 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TV나 책, 큰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
 더라도 100% 믿으면 안되고 역사적 상상을 참고 해서 알아야 한다. 여기에
 역사적 상상이란 과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 사진, 증거를 통해 상상해왔 하나의 방법
 이다. 역사적 상상도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능력,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생활 방식 등에
 따라 역사적 상상이 바뀔 수 있다. 또 역사적 상상을 보았을 때 당시 직접 기록과 나중에
 다시 기록을 보았을 때 당시 직접 기록한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을 서로 비교 하는데
 1차 사료, 2차 사료가 있다. 1차 사료는 당시 직접 기록한 것이고, 2차 사료는 나중에
 다시 기록을 보았을 때이다. 역사적 상상이 적을 경우에는 2차 사료이고 2차 사료는 정확
 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료는 1차 사료이다. 2차 사료를 쓸 때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하여 읽어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 또는 원이나 사람에게 대해 보는 사람, 관점
 에 대해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를 보고 하는 것과 직접 가서 보려는 것의 차이점
 을 알아보면 먼저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못한 것은 정확할 때에는 들은 것의 중간에 하나
 씩 빠져 버릴 수도 있고 거짓을 붙여 꾸며낸 이야기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보고 하면
 은 실제 진실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 예를 들면 들은 이야
 기를 교장 선생님께서 보고 할 때 들은 이야기를 보려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직접
 보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난다. 이것을 보아 직접
 보고 하는 것과 들은 보고 하는 차이점의 기준은 직접 경험한 것과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알려면
 자료, 증거, 사진 등이 필요하다. 자료나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증거, 사진 등은
 통해서 역사적 상상으로 통해 알아 왔었다. 이렇게 역사적 상상을 올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 우리들의 자세는 TV나 책, 큰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도 무조건
 100% 믿으면 안되고 재가 직접 그 당시의 과거를 들여가 자신이 직접 생각해 온 생각
 상상, 사진, 증거, 자료를 통해 보는 역사적 상상을 통해 알아 온다. 이렇게 알아 보고 이해
 할 때, 사람마다 생활 방식,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자신의 의견만 고강하면 안된다.

가